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인프라 집적된 광주에 유치

광주 국회의원 공동회견…플랫폼 공장도 설립

AI사업 ‘첫 걸음’ 13개 분야 1597억 국비 확보

지난달 경주 APEC에서 회원국들이 뜻을 모은 ‘AI 이니셔티브’ 실행기구인 ‘아시아태평양 AI센터’를 광주에 유치한다.

AI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 인공지기 생산업체 플랫그룹이 조만간 광주에 공장을 설립할 전망이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아태평양 AI센터’를 광주에 설립되면 광주가 국제적

인 AI도시로 부상하게 돼 ‘광주 AI 중심도시’ 조성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는 역내 모든 회원 경제의 AI 전환 참여와 AI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행 방안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를 정상 합의문으로 체택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국내에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해 아태지역 AI 혁신 완화와 AI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시 APEC 회의장을 방문한 헌승환 앤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광산구을)은 이날 회견 이후 브리핑에서 광주 의원들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유럽 최대 공조기 생산업체인 플랫그룹의 광주공장 설립 계획이 구체

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들었다”며 “실현되면 AI사업에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15억 유로를 투자해 독일 플랫그룹(FlaktGroup)을 인수했다. 플랫그룹은 1918년 설립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글로벌 투어 공조업체다.

민 의원은 “플랫그룹의 투자는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공조기기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AI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광주 AI 중심도시 구축의 ‘첫걸음’이 될 총 13개 분

야 1597억 원 규모의 ‘정책폐기지 실증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안했던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확장 △국가 AGI 연구소 설립 △광주 모빌리티도시 지정 제안이 모두 반영됐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광주 위치는 무관됐지만, 광주시민의 뜻을 들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끈질기게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대국민 기자회견과 함께 광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 AI 예산은 과방위 조인월의

원(서구갑)과 산업위 정진우 의원(동구남구갑)이 기본 일개를 세워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도걸 의원(동구남구을)과 정진우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를 증액 반영했다.

다른 광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인맥과 역량을 총동원해 관계 오로의 부처와 기관을 설득하며 ‘원 팀’으로 힘을 보탰다.

광주 의원들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인 국가 AGI 연구소 위치는 물론 광주 AI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입법·예산·정책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회 본관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현관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제막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민 속원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 가속도

양부남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정부예산 50억원 확보

설계재검토 용역 후 공사 착공…“조속 이전에 최선”

광주시민의 속원인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됐다.

광주시는 탄약고가 이전되면 공원과 국제문화·MICE 기능을 결합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예산 35억원이 증액, 총 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는 지난 50년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양부남 의원과 광주시의 전방위적인 대정부 설득전이 주효했다. 먼저 양부남 의원은 지역구인 서구



는 물론 광주의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탄약고 이전을 위해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의 조속한 이전을 직접 건의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업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국방부, 기재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한 끝에 이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별도 예결위원회를 포함한 예결위원, 국방위원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예산안

의 이전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강기정 시장도 지난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안규복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2026년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박근택 국회의원 등도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양부남 의원은 “중단됐던 이전 사업이 예산확보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마륵동 탄약고 이전은 내년 설계재검토 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미반영 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해 탄약고 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등 현안 추진 ‘날개’

▶1면서 계속 문화 인프라 강화도 이어진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기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6억5000만원을 확보하며 시설 유치에 청신호를 켰다.

돌봄·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20억원이 반영돼, 광주에서 시작한 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강화된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238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668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

철도 2호선 건설 100억원(정부안 1665억 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 35억원(정부안 15억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64억 4000만원(정부안 108억6000만원) 등도 추가 확보됐다.

전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 총 10조4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9조502억원보다 9540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지난 9월 정부 안 단계에서 9조4188억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85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국비 1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전남도는 특히 내년 국비에서 광역교통망 SOC 사업을 대거 확보했다. SOC 분야

예산은 올해 1조905억원에서 29.2% 증가한 1조4099억원으로 편성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는 570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국비는 1016억원이다.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개량 사업비 1722억원, 고속~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설계비 80억원,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비 75억원도 포함됐다.

관광 인프라도 강화된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는 도내 36개 사업에

663억원이 골고루 반영됐다.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원(총사업비 401억원),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5억원(총사업비 215억원), 장성 K-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4억원(총사업비 214억원) 등이다.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사업비 20억원도 포함됐다.

250억원과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원(총사업비 495억원)도 확보됐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전남의 주력 산업인 김 산업과 AX농업 기반 구축 예산이 포함됐다.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비 5억원이 배정됐으며, 무안농업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 45억원(총사업비 400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관광 인프라도 강화된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는 도내 36개 사업에

663억원이 골고루 반영됐다.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원(총사업비 401억원),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5억원(총사업비 215억원), 장성 K-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4억원(총사업비 214억원) 등이다.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사업비 20억원도 포함됐다.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내년 예산안에 반영…월 15만씩 2년간 지급

전남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곡성군은 지방소멸 위기 예방과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내년 예산이 국회의원 예산안에 반영되는 경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온 분야이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회의원 예산 확보와 함께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비 5억원과 함께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비 5억원을 포함해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온 분야이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회의원 예산 확보와 함께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비 5억원과 함께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비 5억원을 포함해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온 분야이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내년 예산이 국회의원 예산안에 반영되는 경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전담 행정 조직을 신설해 올해 곡성군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 완료하는 등 사업 착수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동 미ッション 운영과 지역 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유통·곡성문화 활동을 통한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예산 확보를 통해 곡성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재정 기반